

南貞一軒 詩世界的 特徵

김 여 주*

<目次>

I. 서론	2. 사대부적 의식에 기반한 참신한 포착
II. 생애와 문학적 배경	3. 소재와 정감의 다양성 추구
III. 문학의식	V. 결론
IV. 시세계	1. 소박한 일상의 담박한 표현

<국문 초록>

南貞一軒은 조선후기 구한말에 牛溪 成渾의 10세손 成大鎬의 부인으로, 젊은 시절은 서울에서 만년은 호서지역에서 보낸 전형적인 士大夫家의 여성 시인이다.

18세기 이후 문학의 담당계층이 확대되고 서울의 도시적 발달과 생산성 향상은 삶의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와서 士大夫나 中庶 계층의 심미적 취향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여성작가들에게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조선후기 서울 한강변을 중심으로 三湖亭에서 본격적으로 詩會를 가지면서 詩作活動을 전개했던 여성작가들은 신분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小室 계층으로, 金雲楚, 金錦園, 朴竹西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典型的인 士大夫家 女性作家로는 徐令壽閣이 있으며, 호서지역에서는 畿湖士林의 학문적 영향 아래 金浩然齋, 任允塾堂, 姜靜一堂 등의 士大夫家 문인들이 배출되었다.

* 성신여자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ykim@sungshin.ac.kr

이렇게 여성작가들은 각자의 신분적 상황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시세계와 철학적 사고로 창작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은 조선후기 문단의 다양한 변화가 끼친 큰 영향력과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능력 인정과 보이지 않는 지원이 밑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본고는 이 다양성의 한 면모를 19세기 말 근대 이전의 여성작가로 태어난 남정일현의 삶과 시작품을 통해 찾아보았다.

『貞一軒詩集』 57題 65首의 시작품은 정일현 스스로 詩稿를 태웠기 때문에 모두 유실 될 것을 염려한 아들 台永이 남은 원고를 모아 시집으로 발간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작품수가 많지 않아서 정일현의 시 특징의 전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점과 시작에 대한 소극적 의식을 드러내는 주요한 두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초반기에 쓴 시로 추정되는 문집 앞부분의 시들은 시 형식도 주로 絶句詩와 五言律詩들로 짧고 단순한 시 형식을 통해 일상에서의 삶의 소박한 모습을 담박한 분위기로 그렸다. 주로 가족 간의 일상을 그리거나 주변의 일상적 소재를 통해 삶의 소박한 모습을 그려내면서, 서글픈 상황도 傷心이 크게 드러나지 않게 일상을 담담하게 그려내는 표현방식을 보여준다.

뒤로 가면서는 좀 더 자신감 있게 시작활동을 하면서 사대부가 부녀로서 사대부적 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시 전반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물 자체에 의미를 두고 그 이치를 찾아서 참신하게 표현하면서 사물의 흥취도 놓치지 않는 시인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러한 면모는 당대에 시와 산문 모두에 걸쳐 작가적 역량을 가진 인물로 식자층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李建昌의 정일현에 대한 평가에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악부시와 같은 자유로운 시체에서 다양한 체재들과 세시풍속의 체재를 활용하여 여성에게 제한적일 수도 있는 소재나 정감들을 폭넓게 넘나 들고 있다. 「遊仙詞」·「採蓮曲」 등의 시 짓기를 통하여 소재와 정감의 다양함과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으며, 세시풍속의 시에서도 시어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자신만의 시각으로 색다른 정감들을 표현하였다.

여성작가 정일현의 시작품을 통해 구한말 근대 이행기의 여성시인의 면모를 살펴보면 남성 지식인[사대부]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을 사대부가 여성시인의 한계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는 조선후기 여성문인들의 다양한 창작활동들이 집적되고 남성작가들 혹은 가족들의 지원 속에 자연스럽게 여성시인이면서 독립적인 시인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다. 남정일헌 시세계의 특징을 근대 이행기의 여성문학의 발전적 면모로 인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녀의 문학사적 위상이 제대로 드러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남정일헌, 영재 이견창, 여성문학, 사대부적 의식, 소재와 정감의 다양성

I. 서론

壬辰亂을 거친 후 문예부흥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18세기 이후에는 문학의 담당계층이 확대되면서 여성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되었고, 당시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에 맞추어 여성작가들의 수도 상당히 늘어났다. 더구나 서울의 도시적 발달과 생산성 향상은 삶의 방식에도 변화를 일으켜 여성작가들의 문학 활동도 활발해지면서 집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신분적 제약에서 자유로웠던 小室 계층의 여성들은 서울 한강 가를 중심으로 三湖亭詩會 등을 갖기도 하였고,¹⁾ 사대부가에서는 여성의 시 창작을 권장하기도 하여 남편, 자식들과 주로 唱和한 詩로 시문집을 엮기도 하였다.²⁾ 이러한 현상은 조선후기 여성에게 문자 교육에 대해 제약이 컸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능력 인정과 보이지 않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면모는 서울과 지리적 접근성이 보다 가까웠던 호서지역에서의 사대부가 여성문인 배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³⁾

-
- 1) 김여주, 「김운초 한시연구」, 『朝鮮後期 女性文學의 再照明』,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pp.85-97.
 - 2) 김여주, 「令壽閣 詩의 美的 特質」, 『漢文古典研究』 제30집, 韓國漢文古典學會, 2015, pp.234-238.

南貞一軒은 조선후기에서 舊韓末로 가는 시기에 牛溪 成渾의 10세손 成大鎬의 부인이 되어 만년을 호서지역에서 보낸 시인이다. 정일헌에 대한 선행연구는 조연숙의 『한국고전여성시사』에 조선후기 사대부가 여성 중 23번째 작가로 소개되어 있으며, 문희순의 「호서지역 사대부가의 여성교육과 여성문인의 배출」에 19~20세기 작가로 소개하였고, 강혜선의 『여성한시선집』과 송준호의 『한중일 여류 한시선』에 작품이 소개되어 있어서,⁴⁾ 아직 개별 작가연구가 미미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許米子, 『朝鮮朝女流詩文全集』 3권⁵⁾에 실려 있는 原文 『貞一軒詩集』과 1997년 牛溪文化財團에서 한글 번역본으로 출간한 『貞一軒詩集』⁶⁾을 主資料로 하여 젊은 시절은 서울에서, 만년은 호서지역에서 보낸 전형적인 士大夫家의 여성으로서 정일헌의 시작품에서는 어떠한 특징이 드러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정일헌의 시적 특징을 살피는 것은 19세기 말 근대 이전의 여성작가로서의 면모를 조명하는데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생애와 문학적 배경

南貞一軒(1840~1922)은 藥泉 南九萬의 7세손으로 南世元의 딸이다. 세 살 때 훈민정음을 통달하니 할아버지가 그 才藝를 사랑하여 날마다 漢字 수습

- 3) 문희순, 「호서지역 사대부가의 여성교육과 여성문인의 배출」, 『인문학연구』 통권 88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 4) 조연숙, 『한국고전여성시사』, 국학자료원, 2011, pp.202-209; 문희순, 앞의 논문, pp.61-62; 강혜선, 『여성한시선집』, 문학동네, 2012(4편의 시와 작가소개가 실려 있음); 송준호, 『한중일 여류 한시선』, 태학사, 2013, pp.176-184.
- 5) 許美子, 『朝鮮朝女流詩文全集』 三, 太學社, 1988.
- 6) 牛溪文化財團에서 1997년 100년 만에 重刊된 派譜 편찬 및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貞一軒詩集』을 국역과 함께 출간 보급하면서 民族文化推進會(現 한국고전번역원)의 성백효교수께 번역을 맡겨서 출간하였다. 본고를 준비하면서 시 번역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나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였다는 점 밝혀둔다.

자를 벽에 걸어놓고 가르쳤는데 한번만 보면 다 외웠으며 經史에도 막힘이 없었다고 한다. 16세에 牛溪 成渾의 10세손 成大鎬(1839~1859)의 부인이 되었는데 남편이 21세의 이른 나이에 후손도 없이 졸하자 그 뒤를 따르려고 분신하고자 하니 시어머니의 지극한 만류가 있는 후에야 목숨을 보전하였다. 집안을 다스리는 여가에 書史 보기를 스스로 즐거워하며 자신의 방에 편액을 ‘貞一’이라고 하였다.7)

정일헌에게는 후사가 없어서 집안의 형님인 成縉鎬의 둘째아들 台永을 양자로 삼았으며, 台永 또한 자녀를 낳지 못해 從姪인 樂浩를 양자로 들였다. 그러나 卒年の 즈음에 아들 태영에게 “네가 나이 60여 세에 아들 네 명을 두었으니 나는 장차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8)고 한 것을 보면 늦은 나이에 양자인 태영이 후사를 본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弱冠 시절에 동쪽 고택으로 찾아가 孺人을 뵈오니 유인께서 나를 친동생처럼 사랑 하셨다. (중략) 유인께서 만년에 湖西에 거주하셨는데 고을에 토구의 난리가 나서 (후략)9)

정일헌은 젊은 시절에는 서울에서, 만년에는 예산읍으로 내려가서 지냈던 것 같다. 耕齋 李建昇의 나이가 弱冠 시절이면 1878년 무렵이니 당시 정일헌은 39세 쯤 되었고 ‘土寇의 難’은 1894년 甲午東學亂을 가리키므로 50세 이후가 된다. 1923년 83세에 卒하였으며, 묘소는 아산 농은리에 있다.

현재 전하는 『貞一軒詩集』은 정일헌이 1894년 東學亂의 발발로 피난을 갈 때 그 詩藁를 불속에 던져 없앤 것을 안타깝게 여긴 아들 成台永이 남은 작품

7) 成台永, 『貞一軒詩集』(허미자, 『朝鮮朝女流詩文集』 三, 태학사, 1988. 동일한 출전 이므로 이하 생략), 「先考妣合葬墓誌」, pp.475-476.

8) 成台永, 『貞一軒詩集』, 「先考妣合葬墓誌」, p.477, “又曰 汝年六十餘 有子四人 吾且瞑目矣 是歲十一月十四日 考終於禮山邑僑舍”

9) 李建昇, 『貞一軒詩集』, 「跋文」, p.488, “余弱冠時 往拜孺人於京東古宅 孺人愛之如胞弟 … 孺人晚年居湖西 鄉有土寇之難 …”

들을 수합한 것이다. 그 당시 외종사촌 寧齋 李建昌(1852~1898)에게 序文을 받아 두었다가 그녀가卒한 다음해인 1923년에 출간하였다.¹⁰⁾ 跋文은 耕齋 李建昇(1858~1924)이 썼으며, 原集에 漢詩 57題 65首, 祭文 1篇과 附錄에 아들 성태영의 「先考妣合葬墓誌」, 蘭谷 李建芳(1861~1939)의 「墓表」, 이견창의 시 「道雲閣老姊座下」, 이견승의 「上道雲閣書」가 실려 있다.

18세기 이후 문학의 담당계층이 확대되고 서울의 도시적 발달과 생산성 향상은 삶의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와서 士大夫나 中庶 계층의 심미적 취향이 확산되었다.¹¹⁾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여성작가들에게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게 된다. 조선후기 서울의 한강변을 중심으로 三湖亭에서 본격적으로 詩會를 가지면서 詩作活動을 전개하였던 여성작가들은 신분적 제약에서 자유로웠던 小室 계층의 여성들이다. 기녀출신으로 金履陽의 小室이 된 金雲楚와 金德熙의 小室로 14세 때 남장한 채 금강산 유람하고 紀行詩文을 남긴 金錦園, 朴宗彦의 庶女로 徐箕輔의 副室이 되어 짧은 생애 동안 詩作에 전념하였던 朴竹西 등이 있다. 그리고 조선조 典型的인 士大夫家 女性 徐令壽閣이 있으며,¹²⁾ 호서지역에선 기호사림의 학문적 영향 아래 金浩然齋, 任允擎堂, 姜靜一堂 등의 士大夫家 문인들이 배출되었다.¹³⁾

이렇게 여성작가들은 각자의 신분적 상황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시세계와 철학적 사고로 창작활동을 하였으며, 그 적극성도 각각 다르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사회적 제약과 악조건에서도 여성작가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하여 이루어 놓은 적지 않은 성과이며, 조선후기 문단의 다양한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능력 인정과 보이지 않는 지

10) 李建昌, 『貞一軒詩集』, 「序文」; 李建昇, 『貞一軒詩集』, 「跋文」.

11) 심경호, 「조선후기 시사와 동호인 집단의 문화활동」, 『민족문화연구』 제31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88.

12) 김여주, 「조선후기 여성문학의 문학사적 의의」, 『朝鮮後期 女性文學의 再照明』,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참고.

13) 문희순, 앞의 논문.

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19세기 말 근대 이전의 여성작가 남정일현의 삶과 시작품을 분석함으로써 당대 여성작가들이 다양하게 만들어낸 작품 세계의 한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일현이 살았던 시기는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까지 舊韓末이어서 이전의 전통시대와 그 이후 일제 식민지 시대와의 불연속상에 놓인 불행한 시기였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과 서구리는 이질적 충격 속에서 지성인들의 대응방식은 크게 開化, 衛正斥邪, 東學 등의 상이한 활동을 통해 민족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했다.¹⁴⁾ 문학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당위는 그대로 표출되어졌으나 정일현의 경우 여성이면서 만년에 湖西에서 거주하였기에 이러한 사회 상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아서 시작품 전반에서 그 정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도리어 남정일현은 조선후기 시적 경향의 다양화에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文壇에서는 三淵과 白岳 詞壇으로 이어지던 학맥이 19세기에 이르러 쇠퇴하게 되지만 18세기 후반에 왕성하게 활동을 벌인 연암과 後四家는 국내적으로 삼연의 문학론을 잇고 국외적으로는 명청대 중국문인들에게서 일정한 영향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특히 후사가들은 서얼 출신의 신분적 제약을 역으로 활용하여 정통 사대부들이 볼 수 없는 민간의 物態人情을 사실적 회화적으로 묘사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으며 竹枝詞라는 틀을 빌려서 노래하기도 하였다.¹⁵⁾ 조선후기 騷壇이 ‘模擬’를 배척하고 ‘創新’을 선호하여 개성적인 시세계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紫霞 申緯, 秋史 金正喜에 이르러 실제로 ‘法古’보다는 ‘創新’에 관심을 보인 燕巖 및 後四家와는 다르게 법고와 창신의 균형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秋史 시에서 드러나는 소재의 다양화 경향도 이미 후사가의 죽지사에서 그 싹을 틔웠거니와 추시는 시의 대상을 삶의 주변에서 골고루 취택함으로써 시세계의 다양화를 꾀하였다.¹⁶⁾ 이러한 조선후기의 시문학적 경향들이 정일현의 시

14) 민병수, 『韓國漢詩史』, 太學社, 2006, pp.463-464.

15) 민병수, 위의 책, pp.427-430.

16) 민병수, 위의 책, pp.448-449.

작품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바로 앞선 시대의 여성들의 시작품들과는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Ⅲ. 문학의식

정일현의 작품집은 「祭文」 한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散文이 없음은 작가의 문학의식을 살피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詩作에 대한 생각도 추출해 내기가 쉽지 않다. 남정일현이 다른 여성 시인에 비해 작품수가 적은 이유는 「序文」·「跋文」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1894년 東學亂의 발발로 피난을 갈 때 그 詩藁를 불속에 던지며 “내 손에서 나온 자취가 흑시 길에 버려져 흩어지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¹⁷⁾는 것이다. 곧 그녀 스스로 詩藁를 태워 없앤 것이니 이러한 행위는 여성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조심스러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사대부가 여성이 시작 행위에 대해 갖는 전형적인 소극적 행태임을 알 수 있다.

다음 「序文」·「跋文」의 내용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잘 드러난다.

누님이 평소 지어온 시를 비록 성씨 남씨 두 집안의 사람들은 쉽게 볼 수 없었지만 오직 나는 볼 수 있었는데 보면 문득 속으로 외우고 물러나와 기록하여 상자에 보관하곤 하였다.¹⁸⁾

유인이 아직 15살이 되기 전부터 이미 시 짓기에 능했으나 비록 친척이라도 얻어본 자가 없었다. (중략) 유인이 나를 친형제처럼 사랑하였다. 내가 시를 보여줄 것을 청하니 유인께서 “나는 진실로 시를 짓지 못하고 시를 짓는다 하더라도 부모를 섬기고

17) 李建昌, 『貞一軒詩集』, 「序文」, p.432, “前年有土寇之難, 吾母將盡室以避, 遽投其詩藁于火曰, 不可使吾手跡或墮於道路.”

18) 李建昌, 『貞一軒詩集』, 「序文」, p.431, “姊平生所爲詩 雖成南二氏之人 罕得見者 惟余得以見之 見輒竊誦而退 筆以藏之篋”

자식을 기르는 여가에 몸소 길쌈하고 음식 장만하며 종들을 데리고 집안일 다스리니 어느 겨울에 시를 짓겠는가?” 하셨다. 이에 내가 짐짓 어리석은 말투로 “부인이 시를 잘하는 것도 진실로 드물고 더불어 시를 논할 아우가 있는 것도 또한 기특한 일일진대 어찌 숨기기를 이리도 심하게 하십니까?” 하였다.¹⁹⁾

위의 서문과 발문의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정일헌은 시를 지어서 남에게 보여주기를 꺼려하였고 女事에 중사하는 것이 당연함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외종사촌인 영재 이견창과는 드물게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은 시를 보여주면 외워서 기록으로 남겨두었다는 것을 보면 그녀에 대한 영재의 인정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文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작가의 내면을 읽어내기는 쉽지 않지만 시작품 중에 간간이 시 쓰기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다음 시에서는 작가적 의식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다.

音書一斷隔天涯	편지 소식 끊어진 건 하늘 저 끝 멀어서죠
悵望雲間賢弟家	구름너머 시동생 집 아스라이 바라보네
土缶嘯哇愚見妄	질 장구로 노래함은 어리석은 내 맘 표현
錦囊璀璨幾篇嘉	비단 주머니 빛나는 시 아름답기 몇 편인가
木瓜久待瓊瑠報	모과 ²⁰⁾ 주고 아름다운 시문 오래 기다리니
尺素胡無金玉華	짧은 편지 어찌 금옥의 화려함 없겠어요
拙句要探信息大	졸렬한 시 오직 소식 전하자는 맘 큰 거지
敍懷非敢唱酬誇	회포 풀며 시구 화답 하려는 것 아니지요 ²¹⁾

19) 李建昇, 『貞一軒詩集』, 「跋文」, pp.487-488, “孺人自未笄 已能詩 然雖親戚 無得見者 … 孺人愛之如胞弟 余請見其詩 孺人曰 吾固不能詩 卽能詩 事育之餘 親執裁鉞 督婢僕治事 奚暇及詩也 余故爲駭言曰 婦人能詩固稀有 可與言詩如弟者亦可念 何隱之甚也”

20) 木瓜 : 모과. 『詩經』, 「衛風·木瓜」, “投我以木瓜 報我以瓊瑠”에서 모과를 던져주기에 옥으로 보답하였다는 데에서 비롯된 말로 서로 주고 받는 선물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는 逆으로 사용하였다.

21) 南貞一軒, 『貞一軒詩集』, 「12.贈夫弟」.

賢書忽落荒溪涯	어진 글이 홀연 묵은 시냇가로 날아드니
推許愚兄比大家	어리석은 형을 칭찬해서 대가에 견주셨네
恨處深閨才識淺	깊은 규방이라 才識 짧은 것이 한스럽고
敢期文苑濯磨嘉	문단에서 갈고 닦아 아름답길 바라겠소
時多閒靜忘塵累	때로 모두 한정해서 진세 얽힘 다 잊고서
日事優遊度歲華	날마다 멋진 노닐 세월을 보내는데
人或致疑非我製	사람들은 혹 내 작품 아니라고 의심하리니
從今誓不以詩誇	이제부터 시 지어서 보여주지 않을테요 ²²⁾

서울로 떠나가 살고 있는 시동생과 시를 주고받으며 시동생의 시를 “비단 주머니 빛나는 시[錦囊璀璨]”라고 칭찬하면서 자신의 노래는 “질장구[土缶]”라고 겸손하고 있다. 자신의 詩句를 “졸렬한 시[拙句]”로 표현하고 회포 풀며 唱酬하자고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두 번째 시 頷聯에서는 “깊은 규방이라 才識 짧은 것이 한스럽고 문단에서 갈고 닦아 아름답길 바라겠소[恨處深閨才識淺, 敢期文苑濯磨嘉.]”라 하여 작가적 의식의 면모를 토로하고 있다. 尾聯에서의 ‘내 작품 아니라고 의심할까봐 보여주지 않겠다’는 표현은 여성으로서의 조심스러움도 의식 저변에 깔려 있지만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할 것에 불평한 마음도 엿보인다. 은연중에 시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兄我雖云同着裳	누님과 내가 비록 같이 치마를 입었으나
從遊何可共書堂	수학함에 어찌 서당 함께 했다 할 수 있나
夜深虛室應生白	밤 깊어 빈방에는 당연히 도심 차오르고
雪壓孤松不改蒼	눈에 눌린 외로운 솔은 푸른색이 변치 않네
書讀聖賢皆理窟	성현 쓰신 책 읽으니 깊은 이치 굴속이요
山離塵俗是仙鄉	진세 떠난 산속이라 모두가 다 신선고를
聊將土缶酬瓊什	애오라지 질 장구로 옥 같은 시에 답하오니
雲暮江天更悵望	구름 저문 강 하늘 아련하게 다시 보네 ²³⁾

22) 南貞一軒, 『貞一軒詩集』, 「13.用前韻答夫弟」.

23) 南貞一軒, 『貞一軒詩集』, 「11.呈夫姊」.

시누이에게 드린 시에서도 겸손하면서도 자부심을 드러내는 의식의 양면성을 볼 수 있다. 시누이가 자신과 같은 여성이지만 자신과는 격이 다른 공부를 했다면서 『莊子』의 ‘虛室生白’의 경지를 들어 학문세계의 깊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여성이 학식을 갖춤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것이니 사대부적 의식의 한 면모를 가지고 있음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래서 시누이의 시는 옥 같은 데 비해 자신의 시 쓰기는 역시 질장구를 연주하는 듯 소박하다고 겸손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시누이의 세계를 인정하는 자신에 대해 동일시를 통한 자부심이 내포되어 있다.

다음 詩에서는 시 쓰기를 상당히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그런 상황을 재치 있게 그려낸다.

物外閑居何處尋	사물 밖에 한가하게 거할 곳을 어디서 찾나
道高峰下白雲深	도고산 봉우리 아래 흰 구름 깊구나
門前對案開平野	문 앞에 마주해서 평평한 들판 열려있고
宅畔成籬繞碧林	집 주변에 울타리는 푸른 숲이 둘러있네
不換三公遺世累	삼공 벼슬 바꾸지 않는 건 세상 걸림 버려서고
莫如一壑有仙心	이 골짜기보다 좋은 곳 없음은 신선마음 있어서라
新詩吟罷誰能和	새시 읊기 마치고 그 누가 화답할까 했더니
花院春禽摠好音	꽃동산에 봄새들이 온통 고운 소리내네 ²⁴⁾

호서지역으로 와서 살면서 도고산 속 자연의 한가한 맛을 즐기고 있다. 이러한 골짜기에서의 삶을三公 벼슬살이하고 바꾸지 않는 것은 세속의 얽힘보다는 신선세계 좋아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한다. 정일헌에게 신선세계는 한가한 자연과 하나가 된 세계인 것이다. 이러한 흥취를 시로 읊어 놓고 화답할 이 찾으니 꽃동산의 봄새들의 화음만 들려온다는 것이다. 자신이 새로 지은 시가 자연 속의 새소리와 어우러져 온통 고운소리로 들릴 만큼 자부심에 차서 그

24) 南貞一軒, 『貞一軒詩集』, 「15.道雲閣謔詠(居道高山下故因以爲閣號)」.

흥취를 읊고 있다.

다음 시에서는 시의식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데,

(前略)

溫其如玉藏中美	온화하기 옥과 같아 내면의 미 간직하고
闇以成章發外華	남모르게 무늬 이뤄 바깥으로 화려하네
着力宜先誠敬學	힘을 내서 우선할 건 誠敬 공부 하는 것
豈有吟詠向人誇	어찌 시를 읊으면서 남을 향해 자랑하리 ²⁵⁾

誠敬 공부 하다보면 내면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진다. 그러니 “무늬 이뤄 바깥으로 화려 하네[成章發外華]처럼 저절로 무늬가 이루어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자랑할 것도 없다고 한다. 시란 내면 공부가 충실하면 자연 발화하게 되는 것이라는 천기론적 이론을 주창하였던 조선 후기 사대부 시의식과 일정하게 연계되고 있음을 본다.

IV. 시세계

정일헌의 시작품 중 57題 65首가 남은 것은 정일헌 스스로 詩稿를 태운 가운데에서도 그 유실을 염려한 아들 台永이 남아 있는 원고를 모아 시집을 발간했기 때문이다.²⁶⁾ 전해지는 작품수가 많지 않다는 상황은 정일헌의 시 특징의 전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점을 갖게 한다. 또한 50대 이후 湖西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것은 「15.道雲閣謾詠(居道高山下故因以爲閣號)」 등 몇 편의 시 제목을 통해서 그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으나 그 외의 작품에서 거주지 표시가 따로 되어 있지 않아서 작품 창작의 배경을 유추하기가 쉽지

25) 南貞一軒, 『貞一軒詩集』, 「17.道雲閣閒吟」.

26) 李建昌, 『貞一軒詩集』, 「序文」, p.432. “난리가 평정되자 태영이 그 부분을 거두어 편집하여 한 권을 만들었다.[難定台永復收其副草編爲一卷]”

않다. 따라서 문집에 남아있는 작품에 최대한 분석적으로 접근하면서 시세계의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시의 編次를 보면 초반기 시부터 시작해서 시기별로 나열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작품에 시대 표시가 없어서 확신할 수는 없다. 초반기 시로 보이는 앞부분의 시들은 형식면에서 絶句詩와 五言律詩 형태로 소박한 일상의 담박한 표현이 주로 드러나 있다. 뒤로 가면서는 좀 더 자신감 있게 시작활동을 하면서 사대부가 부너로서 사대부적 의식에 기반하여 사물에 대하여 참신한 포착을 하고 있음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악부체 시들과 세시풍속을 읊은 시들에서는 소재와 정감 등이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이러한 차례로 정일현의 시세계의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1. 소박한 일상의 담박한 표현

문집 앞부분에 있는 초반기에 쓴 시는 시 형식에 있어서 주로 絶句詩와 五言律詩들이 주를 이루는데 짧고 단순한 시 형식을 통해 일상에서의 삶의 소박한 모습을 담박한 분위기로 그려내고 있다. 주로 가족 간의 일상을 그리거나 주변의 일상을 재치 있게 그려서 이를 통해 정일현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놓았다.

童婢年十四	어린 여종 나이가 열네 살인데
徒步告歸寧	그냥 걸어 집에 안부 간다 하는데
嗟我閨中處	슬프구나 안방에서 꿈쩍도 없이
何時過鯉庭	어느 때나 친정집 뜰 지나가보나 ²⁷⁾

부모님을 뵈러가는 어린 여종을 보내면서 쓴 제일 첫 번째 시이다. 五言絶句의 시로 짧은 시구 안에 자신과 대비되는 어린 여종의 상황을 “그냥 걸어서 [徒步]”라는 시어로 집약해서 표현하고 있다. 여종이 걸어서 가는 특별할 것

27) 南貞一軒, 『貞一軒詩集』, 「1.送童婢歸觀」.

없는 상황인데도 이 사실을 단순한 표현을 통해 짚어서 자신과의 대비적 상황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의미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하면서 자유롭게 간다는 의미 등이 단순한 표현에 복합적으로 함축되어 있다. 자신은 사대부가 여성이라 안방에서 꼼짝도 할 수 없고 가더라도 쉽게 그냥 걸어갈 수 없음을 토로한 것이다. 그래서 轉句의 “슬프구나[嗟]”라는 시어에서 주는 탄식의 감정보다 더한 의미를 집약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의 結構가 단순하면서 시어도 어렵지 않게 배치하여 단순한 시어에서 자신의 의도를 발견하게 하는 시어 표현이 예사롭지 않다.

다음 시 「思歸寧」에서는 심리적 거리감이 한결 진하게 전해져 온다.

女子之行遠兩親	여자가 혼인해서 양친과 멀어지니
釣洪陟岵夢遊頻	기수에서 낚시하고 민둥산 오르는 꿈만 꾀다오
仰惟堂上鰥居舅	우러러서 당상에는 홀로되신 시아버님
專靠閨中薄命身	오직 의지할 이 규방 안의 박명한 이 내 몸 뿐
雖是故鄉三舍近	비록 고향은 90리 길 가깝지만
敢因師氏一言陳	스승님 ²⁸⁾ 께 감히 가고 싶단 말씀 어찌하나
私情不及飛鳥鳥	사사로운 정이 나는 까마귀만 못하니
晨去昏來定省均	새벽 갔다 밤에 와서 살핌 함께 하였으면 ²⁹⁾

고향은 90리 길 가깝지만[故鄉三舍近] 여성의 교육자이자 소통의 중개자인 여스승님께도 차마 친절 가고 싶다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어 자식의 가장 기본 도리인 昏定晨省도 못하니 까마귀의 극진한 사랑 反哺之孝를 들어 짐승만도 못한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당상에는 홀로되신 시아버님 [堂上鰥居舅]”이 “규방 안의 박명한 이 내 몸[閨中薄命身]”만 의지하고 계신

28) 師氏: 『詩經』, 「周南·葛覃」, “言告師氏 言告言歸”의 ‘集傳’, “... 師 女師也 ... 此章 遂告其師氏 使告于君子以將歸寧之意 ...”

29) 南貞一軒, 『貞一軒詩集』, 「10.思歸寧」.

다. 자신이 가지 못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자각하고 있기에 정일현은 “살핌 함께 하였으면[定省均]”으로 자신의 바람을 토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傷心으로 빠지지 않는 장치이다.

不寶金珠所寶何	금 구슬 보배 아님 무엇이 보배일까
齊王所寶以賢多	제왕(齊王)의 보배는 어진 사람 많은 것이네
今吾所寶如齊寶	이제 나의 보배는 제왕의 보배 같아
寶有斯婢亦足詫	이 여종이 보배라서 또한 자랑할 만하네 ³⁰⁾

이 시는 이름이 보배인 여종이 그리워서 쓴 시이다. 종의 이름인 ‘寶’字로 戰國時代 齊威王의 치적을 끌어들이어서 금 구슬보다 더 보배는 사람을 아끼는 것이라고 하면서 여종 보배가 이름이 보배면서 사람의 가치도 보배로운 것이 자랑스러워서라고 重意的 표현을 하고 있다. 각 句마다 ‘寶’字를 거듭 쓰면서도 운율미를 살려가면서 주변 일상에서 소재를 구하는 재치를 보여 준다. 「尊舅以求螟事行次坡州」라는 시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듯이 읊고 있다.

此身無子又無夫	이 몸이 자식 없고 또 남편도 없어서
只恃舅姑竟失姑	시부모님 믿었는데 媼母마저 잃었네
望弟生兒兒未育	시동생 아이 낳기 바라나 아직 못 낳아
何時蝶贏負蒲蘆	어느 때나 과라가 어린 螟蛉 ³¹⁾ 업어올지 ³²⁾

나이 스물에 남편을 잃고 자녀를 얻지 못하여 族兄인 縉鎬의 둘째아들 台永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게 되었다. 아직 양자를 삼기 전에 시아버지께서 양자를

30) 南貞一軒, 『貞一軒詩集』, 「5.憶寶婢」.

31) 螟蛉: 원 문집에 蒲蘆로 되어 있어서 시 원문에서는 그대로 두었는데, 蝶贏과 같은 말로 나나니벌임. 螟蛉과 혼동된 것으로 해석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제목 “螟事”에 의거하여 고쳐서 해석함

32) 南貞一軒, 『貞一軒詩集』, 「2.尊舅以求螟事行次坡州」 二首 中 一.

구하러 떠날 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다. 『詩經』³³⁾에서 끌어와 옛사람들은 과라(螺贏), 즉 나나니벌이 螟蛉, 즉 뽕나무 벌레를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로 삼아 길러서 과라로 만든다고 믿었던 것을 인용하여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尊舅以求螟事行次坡州」시의 두 번째首에서는 “다른 사람 자식 있고 나는 양자 구하니 병드신 시아버님 떠나는 길 몇 번 울었나[他人有子我求螟, 病舅登程淚幾零.]”라는 구절에서 눈물로 전송하였다며 그 서글픔을 직접 토로하고 있지만 이 역시 傷心을 절절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상황을 기록하는 느낌이다.

四月南風至	사월이라 남풍이 불어오니까
非秋亦曰秋	가을 아닌데도 또한 가을이라네
(中略)	
雪白經寒節	하얀 눈 내리던 찬 겨울을 겪고 나서
雲黃極遠眸	누런 구름 멀리 까지 짝 깔려 있네 ³⁴⁾
翼覆團團卵	날개로 둥글둥글 알을 덮고서
自然廿日踰	자연스레 이십일을 지나왔으니
(中略)	
觀鷄吾有得	닭을 보고 깨달음 얻게 되나니
負贏不辭劬	螺贏처럼 자식 기름 수고롭다 말아야지 ³⁵⁾

머지않아 보리 추수를 앞두고 누렇게 익은 보리를 읊은 시와 닭이 알을 품어서 새끼 병아리로 키워내는 모습을 읊은 시이다. 주변의 일상적 소재를

33) 『詩經』, 「小雅·小宛」의 “언덕 가운데의 콩을 서민들이 거두어 가는 것처럼, 명령의 새끼를 과라가 업어 데리고 가서 키우니, 그대도 아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방향으로 닭도록 하라[中原有菽 庶民采之 螟蛉有子 螺贏負之 教誨爾子 式穀似之]”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

34) 南貞一軒, 『貞一軒詩集』, 「6.麥秋」.

35) 南貞一軒, 『貞一軒詩集』, 「8.鷄兒」.

통해 삶의 소박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으며, 서글픈 상황에서도 傷心을 문면에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일상을 담담하게 그려내는 방식, 이러한 표현 방식이 貞一軒의 시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

2. 사대부적 의식에 기반한 참신한 포착

시 형식이 七言律詩 형태로 바뀌면서 시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드러날 뿐만 아니라 사대부가 여성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사대부적 사고³⁶⁾를 드러낸다. 시아버님 환갑³⁷⁾을 맞으면서 쓴 시부터는 가족 간의 긴밀한 정을 七言律詩 형식에 맞추어 제법 힘을 실어서 표현하였다. 앞의 Ⅲ문학의식에서 인용한 「11.贈夫姊」, 「12.贈夫弟」, 「13.用前韻答夫弟」 시에서 보았듯이 시에 대한 인식과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시동생, 시누이와 친 동기간 같은 우애를 보여주고 있다.

『詩經』序文에 “마음에 있으면 뜻이 되고 말로 표현하면 시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옛 사람의 경우로 말한 것이다. 후세에는 말로 표현하는 밖에서 시를 구하니 그 형세가 배우지 않고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천하의 시를 배우는 자들이 이따금 날을 보내고 일을 그만두어서 도를 아는 사람들에게 꾸짖음 당함을 면치 못한다. 허물며 내당에서 실근을 짜고 비느질하고 음식 만드는 것을 힘써서 능해야함에 있어서라 (중략) 대개 부인이 시를 짓는 것이 반드시 마땅치 않은 것이 아니라 다만 겨를이 없을 뿐이다. 진실로 뛰어난 재주가 있으면서 예로써 지키고 덕으로써 행하면서 그 공력을 분산하지 않고 그 해야 할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서 말로 표현하는데 그 문체가 있으면 누가 그것을 막겠는가 (중략) 그 집안 다스리는 것이 선량한 관리가 마을을

36) 김여주, 「令壽閣 詩의 美的 特質」, 『漢文古典研究』第30輯, 한국한문고전학회, 2015, p.258; 「朴竹西 漢詩 研究」, 『朝鮮後期女性文學의 再照明』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pp.308-309, “정통 사대부가 집안의 부녀인 영수합이나, 서녀로 태어났으나 사대부가의 전형적인 학구적 분위기 속에서 자란 박죽서는 사대부가 남성들이 학문적으로 경험하고 博覽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할 수 있었기에 사대부가의 여성 의식 혹은 선비 의식(사대부적 사고)을 드러내고 있다.”에서 ‘사대부적 사고’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 서술한 바 있다.

37) 南貞一軒, 『貞一軒詩集』, 「9.尊舅花甲」.

다스리듯 하시며 노련한 장수가 병사들을 통솔하듯 하셔서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쉬시기를 수 십년하면서 몸소 다른 사람의 고됨을 수고로이 행하면서도 유독 시 짓기는 능하였다.³⁸⁾

영재 이견창이 「서문」에서 여성이 시를 짓는 것이 마땅치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분을 잊고 시문의 조탁에 빠져 있는 것이 옳지 않으니, 정일헌이 시 짓기에 능하여 시집을 편찬함은 당연하다고 평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여성으로서 누님인 정일헌을 본 것이 아니라 한사람의 시인으로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며 허여하는 사이임에도 시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하였고 실제로 정일헌의 시작품 중에는 가족에게 준 몇 편의 시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준 작품이 없다. 영재는 1896년 벼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海島(古群山島)로 귀양 가는 길³⁹⁾에 道高山 아래 거하고 있던 정일헌을 찾았는데 아들 태영에게 부탁받았던 서문과 함께 詩 한 수도 지어 바쳤다.

今世誰憐我	지금 세상 누가 나를 사랑할건가
惟吾姊氏存	오직 우리 누님만 계시는구나
嚴程教歇馬	엄한 길에 말을 쉬라 말씀하시고
生日勸加飡	생일이라 음식해서 권해주시네
几閣書香潤	서재에는 책의 향기 넘쳐흐르고
林塘雨色昏	숲속 못엔 비올 기미 온통 어둑해
重聆大家訓	대가의 교훈으로 중하게 들어
不作女嬃言	누님의 말씀이라 소홀히 않네 ⁴⁰⁾

- 38) 李建昌, 『貞一軒詩集』, 「序文」, pp.429-430, “詩之序曰在心爲志發言爲詩 此以古人言也 後世求詩於發言之外 其勢不庸無學而能 故 天下之學詩者 往往弊日妨事 不免爲知道者之所誦 沉閨幃之內 組紉餽饈之 是務而能與 … 蓋婦人之詩非必不宜也 直不暇耳 苟其有秀異之才而持之以禮將之以德 無分其工無廢其事則其發言之有章 疇得以遏之 … 其治家如循吏之治邑如老帥之治兵 蚤作晏休累數十年 躬勞人之苦節而獨能爲詩”
- 39) 李建昌, 『貞一軒詩集』, 「序文」, pp.431-432, “惟爲吾弟日夕以憂 中庸不云乎 其言足以興 其默足以容 爲吾弟誦之 姊之愛余如此 及今之行則姊毅然曰 可矣 余故呈之以詩 曰 重聆大家訓不作女嬃言 觀乎此可見姊之有達識也”

“{전략} 오직 우리 아우를 위하여 밤낮으로 걱정하고 있다. 『中庸』에서 말하지 않았는가? ‘나라에 도가 있으면 그 말이 나라를 일으킬 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침묵이 몸을 용납할 만하다’고 나는 우리 아우를 위하여 이 글을 외운다.”고 하였다. 누님이 나를 사랑함이 이와 같았다. 그런데 이번 길음에 누님은 의연하게 “좋다”고 하였다. 나는 이 때문에 시를 바쳐서 “대가의 교훈으로 중하게 들어 누님의 말씀이라 소홀히 않네”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보면 누님이 통달한 식견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⁴¹⁾

이건창은 시와 「서문」을 통해서 누님 말씀을 형제,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大家의 교훈으로 귀하게 들겠노라고 한다. 또한 자신의 사대부로서의 출처에 대한 생각을 적극 신뢰하고 있는 정일현의 견해에 대해서 통달한 식견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당대에 시와 산문 모두에 걸쳐 작가적 역량을 가진 인물로 식자층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이건창⁴²⁾의 정일현에 대한 인정이 어느 정도 인기를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정일현의 사대부적 의식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讀書萬卷浩無涯	책 읽기 만 권 하니 호방하기 끝이 없고
錦繡瓊瑤日滿家	비단주옥 같은 문장 날로 집에 가득하네
繞屋青山千古色	집을 두른 푸른 산은 오랜 옛날 그 빛이고
入窓明月四時嘉	창에 드는 밝은 달빛 사시사철 아름다워
溫其如玉藏中美	온화하기 옥과 같아 내면의 미 간직하고
閤以成章發外華	남모르게 무늬 이뤄 바깥으로 화려하네
着力宜先誠敬學	힘을 내서 우선할 건 誠敬 공부 하는 것
豈有吟詠向人誇	어찌 시를 읊으면서 남을 향해 자랑하리 ⁴³⁾

首聯에서는 사대부의 학자적 면모가 드러난다. 그래서 眞外叔母께서는 “丈

40) 李建昌, 『貞一軒詩集』, 「丙申(1896)五月二十六日赴謫路詠五律仰呈 道雲閣老姊座下-此日卽寧齋李公生日故聯句云」, p.482.

41) 李建昌, 『貞一軒詩集』, 「序文」, p.431.

42) 이희목, 『이건창 문학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p.14.

43) 南貞一軒, 『貞一軒詩集』, 「17.道雲閣間吟」.

夫의 器量이 있다⁴⁴⁾고 칭찬하셨던 것이다. 誠敬 공부하다 보면 내면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진다. 그러니 “무늬 이뤄 바깥으로 화려하네[成章發外華]”처럼 저절로 무늬가 이루어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어서 굳이 자랑할 것도 없다고 하였다. 학자적 면모와 시인의 면모가 동시에 드러난다.

太極斯爲萬物先	태극은 바로 만물의 근원이 되니
濂翁圖說至今傳	주렴계옹 태극도설이 지금까지 전해온다
氣行天地無形外	기운은 천지의 형체 밖에서 행해지고
理具陰陽未判前	이치는 음양이 나뉘기 전에 갖추었네
月照萬川象可玩	달빛 만개 시내 비취 온통 감상할 만하고
汞分千塊體皆圓	수은 천개 나뉘어도 모두 둥근 모양일세
吾人各有心中極	우리 인간 마음속에 각각 태극 갖추 있어
活水源頭浩浩天	근원에서 흘러오는 저 물 넓어 하늘같다 ⁴⁵⁾

만물의 근원인 태극의 이치를 끝없이 순환하는 원의 이치로 이해하고 그 발현으로서의 경관을 환하게 온 시내를 비치는 둥근 달빛으로, 이 둥근 이치를 아무리 분해해도 끝없이 둥글게 나뉘는 수은의 모습으로 참신하게 포착해내고 있다. 이러한 이치가 인간마음 속에도 갖추어져 근원에서 흘러오는 물처럼 성대해서 맑고 넓은 하늘같다고 깨우친다. “活水源頭”는 朱熹의 『觀書有感』, “問渠那得如許清, 爲有源頭活水來”에서 인용한 것으로 맑고 깊은 道心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음을 함축해 놓고 있다.

三春消息問東君	석 달 봄날 소식을 봄 神에게 물어보니
日以暄之風以薰	햇볕은 따뜻하고 훈훈하게 바람 부네
退却羣陰雷動盪	陰한 기운 물러나니 우레 소리 진동하고
發生庶物氣氤氳	온갖 만물 성장하니 기운이 화평하다

44) 『貞一軒詩集』, 「祭戚叔母淑人坡平尹氏」, p.470, “有時對吾 咄咄咨歎曰 惜哉 吾女之才行 不惟才行之美 汝有丈夫之器量 是尤吾心之鍾愛也”

45) 南貞一軒, 『貞一軒詩集』, 「18.太極」.

淵天活潑禽魚樂	못과 하늘 활발하니 물고기새 즐거움고
雨露沾濡草木欣	비와 이슬 흠뻑 내려 초목들이 기뻐하네
天下春歸吾肺腑	천하의 봄 내 폐부로 다 들어와서
道雲閣上臥閑雲	도운각 위 한가한 구름에 누웠노라 ⁴⁶⁾

“雷動盪”으로 동적인 기운을 표현하고 “氣氤氳”으로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을 그려서 천지가 봄을 맞아서 陽의 기운이 시작되고 있음을 조화롭게 묘사하고 있다. 頸聯에서는 생동감 있는 경물의 모습에서 ‘樂’과 ‘欣’을 포착하여 시인의 마음과 일체감을 이루도록 표현해 놓고, 尾聯에서 자연스럽게 自得自足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여성의 모습보다는 사대부, 선비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이러한 성향을 찾아볼 수 있다.

琅玕奚取萬竿多	옥 같은 대나무 수만 가지 저리 많나
爲愛貞姿種彼阿	곧은 자태 사랑해서 저 언덕에 심었다네
裁作簡編留孔筆	죽간 엮어 책 만드니 공자님의 글 남았고
截成簫管和薰歌	통소 피리 만들어 부니 南薰歌에 어울리네
風前勁草同高節	바람 앞에 역새풀처럼 높은 절개 똑같고
雪裏長松嘆翠柯	눈 속에 키 큰 소나무 푸른 가지 서로 비추네
雖有此君人莫識	비록 이사람 있으나 아는 사람 없으니
山門不見子猷過	산문(山門) 찾는 子猷를 다시 볼 수 없네 ⁴⁷⁾

아무도 못 알아보는 “이사람(此君⁴⁸⁾)”을 자신만은 알아보니 此君을 알아봤던 子猷(王徽之)와 동일시하고자 하는 자부가 엿보인다. 이러한 尾聯의 내밀한 의도를 首聯에서 이미 전제하고 있다. 대나무 사랑이 그 실용성에 있으며

46) 南貞一軒, 『貞一軒詩集』, 「20.天下春」.

47) 南貞一軒, 『貞一軒詩集』, 「21.竹」.

48) 此君: 대나무의 별칭. 子猷는晉나라의 명필 王羲之의 아들인 王徽之의 字. 그가 빈집에 잠깐 거할 적에도 언제나 대나무를 심도록 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묻자 “어떻게 하루라도 차군이 없이 지낼 수가 있겠는가[何可一日無此君耶]”라고 대답한 고사가 전함.(『晉書』 권80, 「王徽之傳」)

늘 푸른 절개에 있다는 심상한 고백을 넘어서서 결국 “이사람[此君]” 하루도 안보고 살 수 없다는 子猷를 이끌어 와서 그마저도 볼 수 없는 아쉬움으로 참신하게 영물의 흥취를 살려낸다.

經營構木在高梢	나무로 동지 엮어 높은 가지 끝에 두니
南國詩人詠鵲巢	남국의 시인이 작소편을 읊었다네
尾獨占風知擇樹	꼬리로는 바람 짐쳐 나무 골라 동지 틀고
身能避雨不苦茅	몸은 비 피해서 거적 띠풀 필요 없네
既勤我圃綱桑土	성실하게 내 집 창문 뽕나무 뿌리로 엮어놓아
豈讓斯干比竹苞	사간편의 대나무 견고함에 비유 어찌 사양하리
見利忘眞深可戒	이익 좇아 참됨 잊음 깊이 경계해야 하니
逐峴何必受人嘲	버마재비 쫓느라고 하필 사람들 조롱 받겠는가 ⁴⁹⁾

까치집을 읊은 시이다. 까치를 노래하면서 『詩經』의 「召南·鵲巢」를 인용하여 까치의 집 잘 짓기의 장점을 살려내고, 頡頏에서 실제로 현명하게 집짓기를 하는 행태를 그렸다. 그렇게 단단하게 뽕나무 뿌리로 집을 엮었으니 “竹苞”에 비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詩經』, 「邶風·鷓鴣」과 「小雅·斯干」을 인용하여 까치의 집짓기를 칭송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까치도 “이익 좇아 참됨 잊는[見利忘眞]” 경우도 있으니 자신을 잡으려는 장자의 쫓음도 모르고 사마귀를 노리고 있는 『莊子』, 「山木」의 일화로 반전을 통해 경계를 삼고 있다. 시 한 편에 특히 『詩經』 시를 여러 편 인용함으로써 다양하면서 적절한 고사 인용을 통해 참신한 표현을 만들어 낼 뿐 아니라 공부가 깊음도 헤아리게 한다.

다음 시는 「鵲巢」를 읊어서 인간과 친근한 재비의 장점을 살려서 재치 있게 그려놓았다.

49) 南貞一軒, 『貞一軒詩集』, 「30.鵲巢」. 七句 “見我忘眞深可戒”는 『莊子』, 「山木」의 “見利而忘其眞”의 일화를 인용한 것이므로 “見我”가 “見利”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번역본의 성백효 교수의 脚註에 동의하여 원문을 고쳤다.

喃喃鶯語語何陳	재잘재잘 지저귀는 제비는 뭐라 하나
萬里飛來自海濱	만 리 멀리 바닷가서 날아 왔다네
每趁新春如有約	새봄 되면 매번 와서 마치 약속 해놓은 듯
更尋舊主不嫌貧	옛 주인 다시 찾아 가난한 것 싫어 않네
紅絲繫足眞吾侶	붉은 줄 발에 묶어 진짜 내 짝 알겠고
卓服迎賓卽爾身	검은 옷에 손님 맞는 이 바로 너로구나
微物猶知恩義重	미물도 되려 은혜 의리 중한 줄 알아
含泥巢屋日相親	진흙 물고 집을 지어 날마다 친압하네 ⁵⁰⁾

「鶯巢」와 대비되도록 인용을 사용하지 않고 청각적 표현을 시작으로 제비와 대화하듯 제비의 마음을 대변하듯 노래하고 있다. 마치 내 집을 찾아온 친구를 반기듯이 신의를 잃지 않고 또 찾아든 제비를 반기는 모습이 확연하다. 시 전반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물 자체에 의미를 두면서 그 이치를 찾아서 참신하게 표현하면서 사물의 흥취도 놓치지 않는 시인의 면모를 보여준다.

3. 소재와 정감의 다양성 추구

정일헌의 시집 뒷부분 시에서는 樂府詩 형태 작품들이 옛 제목을 그대로 쓰면서 10여 편 정도 있고, 이어서 「春夏秋冬」 四時를 읊은 다음 정월대보름 「元宵望月」 부터 시작해서 「除夕有感」으로 우리나라 명절을 시로 읊었다. 이렇게 악부시와 같은 자유로운 시체에서 그 제재들을 활용하고 세시풍속의 제재를 활용하여 여성에게 제한적일 수도 있는 소재나 정감들을 폭넓게 넘나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악부체 시에서는 기존의 악부 舊題를 그대로 활용하여 「塞下曲」·「遊仙詞(2首)」·「上清詞」·「湘靈鼓瑟曲」·「斑竹詞」·「採蓮曲」 등의 제목으로 시

50) 南貞一軒, 『貞一軒詩集』, 「31.鶯巢」.

를 읊고 있다.

嘶風胡馬如雲屯	히힝 우는 오랑캐 말 구름떼처럼 모였는데
鎖鑰無人掌北門	북문에 자물쇠 맡을 사람 그 누군가
波咽河梁撐白骨	물결 거센 강하의 다리에는 백골 천지고
天陰遼野泣羈魂	음산한 요동 들판엔 나그네 혼 울고 있네
枕戈中夜勞歸夢	한밤중에 창을 벤 채 고향 가는 꿈만 꾸니
奏凱何時返故園	어느 때나 개선가 부르며 고국 돌아가나
一曲悲歌雙涕淚	한 곡조 슬픈 노래에 두 줄기 눈물 흘러
千山亂動月黃昏	황혼녘 달빛아래 온산 그림자 어지럽네 ⁵¹⁾

변방의 노래로 변방의 정황과 그 곳을 맡아줄 인물에 대한 불확실, 그리고 삭막하고 음울한 풍광, 수자리 살러간 장부의 향수까지 적실하게 그려 놓았다. 尾聯의 심사는 그 수자리 사는 장부의 悲歌이면서 읊고 있는 시인의 심사까지 투영되도록 정감을 곡진하게 묘사하였다.

飄然輕舉馭清風	날렵하게 가벼이 일어나 맑은 바람 타고
閨苑玄都一路通	신선 사는 閨苑 玄都 한길로 통한다네
六六洞天塵世外	36개의 신선 세계 먼지 세상 밖에 있고
雙雙笙鶴彩雲中	쌍쌍 나는 仙鶴들은 채색 구름 속에 있네
氷肌飲露遊姑射	이슬 마셔 빙설 피부 고야산서 노닐다가
霜杵凝香訪桂宮	향기 어린 찬 절굿공이 달 속 계궁 찾아가네
雖食瑤桃難化羽	비록 요지 복숭아 먹어도 신선되기 어려워
可憐抔土茂陵楓	가련하다 한 줌 흙 된 무릉엔 단풍나무만 ⁵²⁾

玉皇出御靈霄殿	옥황상제 나오셔서 영소전에 거동하시니
十二瓊樓繡戶開	열두 경루에 비단 수놓은 창문 열려있네

51) 南貞一軒, 『貞一軒詩集』, 「34.塞下曲」.

52) 南貞一軒, 『貞一軒詩集』, 「35.遊仙詞」二首 中 一.

樂奏勻天群鳳舞	천상 음악 연주하니 봉황들이 춤을 추고
輦隨瑞日六龍來	상서로운 해 따르는 수레 육룡이 끌고 오네
無幽不察明鑑照	어둔 곳도 못 살필 것 없이 밝은 거울 비추고
有欲皆從盛德恢	하고자 하면 모두 이뤄 융성한 덕 넓기만 해
下土微軀無所倚	속세 사는 미천한 몸 의지할 데 없으니
植松何日望亭哉	소나무 심어놓고 어느 날 정자 바라보겠나 ⁵³⁾

위의 첫 번째 시는 「遊仙詞」로 신선세계에서 노니는 것을 읊은 것이다. 신선세계에서 자유롭게 노닐면서 채색구름 속에서 선학과 함께 노닐고 달 속 계수나무 궁전 까지 신선의 노닐을 노래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한줌 흙으로 돌아간 漢武帝의 능에 가을 단풍든 풍광으로 인간의 현실을 깨우치고 있다. 두 번째 시 「上淸詞」에서도 하늘의 옥황상제의 세계를 읊으면서 화려하고 전능해서 “융성한 덕 넓지만[盛德恢]” 자신은 결국 그 세계와는 먼 “속세 사는 사람[下土]”이니 인간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인 ‘소나무 심어놓고 바라보는 일[植松望亭]’⁵⁴⁾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다. 이는 같은 여성작가라도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현실을 초탈하고자 천상세계와 신선세계를 동경했던 허난설헌의 작품들과는 경향이 다르다. 정일현은 악부체 시 짓기를 통하여 소재와 정감의 다양함과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심사가 다음 시 「採蓮曲」에서 더 잘 드러난다.

南湖淸夜屬新秋	남쪽 호수 맑은 밤에 계절은 막 가을인데
變彼諸姬月下遊	어여쁜 저 아가씨 달 아래서 노닌다네
花笑何如花解語	꽃의 웃음 말할 줄 아는 꽃만 할까
葉輕還欲葉成舟	잎 가벼워 다시 연잎으로 배 만든다

53) 南貞一軒, 『貞一軒詩集』, 「36.上淸詞」.

54) 植松望亭 : 梁나라 陶弘景은 처사이다. 그가 “특히 솔바람 소리를 좋아하는 나머지 정원에 온통 소나무만 심어 놓고는 그 음향을 들을 때마다 흔연히 즐거워하였다. [愛松風 庭院皆植松 每聞其響 欣然爲樂]”는 기록이 있음. (『南史』 권76, 「陶弘景傳」, 한국고전번역원 崔崧, 『簡易集』 권6, 「松風亭翻歌」의 註 참조.)

魚潛綠水驚菱唱	푸른 물에 잠긴 물고기 마음 노래에 놀라고
龜失香巢向草洲	집 잃은 거북이도 수초가로 향해가네
爲愛芳菲堪折取	향기로움 사랑해서 한 송이 꺾으니
嬌荷宜插美人頭	고운 연꽃 미인 머리 꽃을 만하네 ⁵⁵⁾

「採蓮曲」은 남녀상열지사이다. 악부체의 舊題로 짓는 것이 아니라면 그 당시 사대부가 여성으로서 연애시를 지을 수 있었겠는가. 「變彼諸姬」⁵⁶⁾는 『詩經』 詩에서 시집을 때 따라온 媵妾들의 의미로 쓰인 것을 남쪽 호수 가에서 노니는 어여쁜 여인들의 의미로 묘를 살려 인용하였다. 「花解語」는 「解語花」의 의미로 말할 줄 아는 꽃으로 노래할 줄 아는 미인을 가리켜서 尾聯에서 연꽃보다 예쁜 여인들의 모습으로 結構하도록 시어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 頸聯에서는 호수에 배를 띄우고 남녀 간의 사랑노래 부르는 시골벽적함을 물고기와 거북이의 움직임으로 재치 있게 그려서 생동감과 정감이 넘치게 하는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다음 악부체 시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양자를 맞아서 키우고 있는 심사를 비교적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鏡裏孤鸞不勝愁	거울 속 외로운 난새는 시름겨운데
禱天日夜問何求	밤낮으로 하늘 기도 무엇을 구해선가
更培枯木祈生藥	마른 나무 다시 복돋아 꽃피우기 바라서고
移養嘉苗望有秋	옮겨 심은 고운 싹에 가을 수확 바라다오
爾熾爾昌慈母願	자식인 너 번창하기 바라는 게 어미 소원
曰男曰壽乃兒休	아들 낳고 장수함이 아이의 행복인데
凡茲多福非人力	무릇 이 많은 복 인력으로 안 되나니
一炷心香仰玉樓	마음 향축 태우면서 하늘 옥루 우리르네 ⁵⁷⁾

정일헌은 자신도 아이를 낳지 못해 族兄인 縉鑄의 둘째아들 台永을 데려다

55) 南貞一軒, 『貞一軒詩集』, 「39.採蓮曲」.

56) 『詩經』, 「邶風·泉水」, “變彼諸姬 聊與之謀”

57) 南貞一軒, 『貞一軒詩集』, 「40.禱天曲」.

가 양자로 삼게 되었는데 그 아들조차도 처음에는 아들 없어 양자를 두게 되었다고 한다.⁵⁸⁾ 자신이 양자를 들일 때의 감회보다 그 절절함이 더하여 시 전반에 표현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望子曲」·「螟蛉曲」·「桃李曲」 등에서 양자를 두게 된 정황을 다른 시들에서 볼 수 없는 정감들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그 만큼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게 작용해서였던 것이다

(前略)

莫云他子難望孝	남의 아들 효도 바라기 어렵다 마소
惟在阿孃克盡慈	오직 어머니가 사랑을 다함에 있지
會到堂萱春暮後	때마침 어미 침소 흰당에 늦은 봄 되면
佇看階下列蘭芝	뜰아래 난초지초 꽃다움을 내다보겠지 ⁵⁹⁾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마음 상해 서글퍼하지 않고 어머니가 사랑을 다하면 친자 양자의 구별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현명한 어머니 맘으로 감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렇기에 結句에서는 뜰아래 난초지초 꽃답게 핀 뜰을 그러서 자손들의 꽃다움을 비유하며 긍정적 희망적으로 시 흐름을 귀결시켜 놓았다.

세시풍속을 읊은 시에서도 소재에 따라 시어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여러 정감들을 표출하고 있다.

涼風昨夜忽蕭蕭	어젯밤 시원한 바람 홀연 소슬 불어와서
金井梧桐一葉飄	금정에 오동잎 하나 떨어져 날리누나
靑鳥從仙漢帝殿	푸른 새 ⁶⁰⁾ 는 신선 따라 漢武帝의 궁전 찾고

58) 成台永, 『貞一軒詩集』, 「先考妣合葬墓誌」. 각주 8) 참조.

59) 南貞一軒, 『貞一軒詩集』, 「41.望子曲」.

60) 靑鳥: 전설적인 선녀인 西王母의 사신으로, 보통 임금의 사신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漢나라 班固의 『漢武故事』에 “홀연히 푸른 새 한 마리가 서방에서 날아와 전각 앞에 내려앉자, 임금이 동방삭에게 물으니, 동방삭이 서왕모가 오려는 모양이라고 대답하였는데, 과연 얼마 뒤에 서왕모가 도착하였다[忽有一靑鳥從西方來 集殿前 上問東方朔 朔曰 此西王母欲來也 有頃 王母至]”라는 기록이 있다.

靈鳥效力天孫橋	신령스런 까마귀 힘을 다해 천손의 다리 만드네
穿針夜月心何願	달밤에 바느질하며 마음으로 무얼 비나
曬腹秋陽興自饒	가을볕에 詩書든 배 쪼니 흥이 넘친다
天上人間皆有事	천상과 인간세상 모두 제 일 다 있으니
一年難得此良宵	일 년에 오늘처럼 좋은 밤 만나기 어렵다네 ⁶¹⁾

천상에서 牽牛織女가 단 하루 만나는 날인 칠석을 읊은 시에서도 칠석을 한시적 만남의 애절함을 나타내는 소재로만 사용하지 않고 가을을 알리는 시절, 좋은 만남의 날로 그리고 있음이 흥미롭다. 그래서 천상의 만남의 날과 책 읽기 좋은 가을이란 계절의 결합을 재치 있게 結構하여 색다른 칠석의 정감을 펼쳐놓았다.

V. 결론

南貞一軒은 조선후기에서 舊韓末로 가는 시기에 牛溪 成渾의 10세손 成大鎬의 부인이 되어 만년을 호서지역에서 보낸 시인이다. 본고는 젊은 시절은 서울에서, 만년을 호서지역에서 보낸 전형적인 士大夫家의 여성으로서 정일헌의 시작품에서는 어떠한 특징이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18세기 이후 문학의 담당계층이 확대되고 서울의 도시적 발달과 생산성 향상은 삶의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와서 士大夫나 中庶 계층의 심미적 취향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여성작가들에게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조선후기 서울의 한강변을 중심으로 三湖亭에서 본격적으로 詩會를 가지면서 詩作活動을 전개하였던 여성작가들은 신분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小室 계층이었다. 대표적인 여성작가들로는 기녀출신으로 金履陽의 小室이 된 金雲楚와 金德熙의 小室 金錦園,

61) 南貞一軒, 『貞一軒詩集』, 「53.七夕漫吟」.

朴宗彦의 庶女로 徐箕輔의 副室 朴竹西 등이 있었다. 또한 조선조 典型的인 士大夫家 女性作家 徐壽壽閣이 있었으며, 호서지역에서는 畿湖士林의 학문적 영향 아래 金浩然齋, 任允摯堂, 姜靜一堂 등의 士大夫家 문인들이 배출되었다.

이렇게 여성작가들은 각자의 신분적 상황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시세계와 철학적 사고로 창작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은 조선후기 문단의 다양한 변화가 끼친 큰 영향력과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능력 인정과 보이지 않는 지원이 밑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본고는 이 다양성의 한 면모를 19세기 말 근대 이전의 여성작가로 태어난 남정일현의 삶과 시작품을 통해 찾아보았다.

초반기에 쓴 시로 추정되는 문집 앞부분에 실린 시들은 시 형식에 있어서도 주로 絶句詩와 五言律詩들로 짧고 단순한 시 형식을 통해 일상에서의 삶의 소박한 모습을 담박한 분위기로 그려내고 있다. 주로 가족 간의 일상을 그리거나 주변의 일상적 소재를 통해 삶의 소박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으며, 서글픈 상황도 傷心이 크게 드러나지 않게 일상을 담담하게 그려내는 표현방식을 보여준다.

뒤로 가면서는 좀 더 자신감 있게 시작활동을 하면서 사대부가 부녀로서 사대부적 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시 전반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물 자체에 의미를 두고 그 이치를 찾아서 참신하게 표현하면서 사물의 흥취도 놓치지 않는 시인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래서 여성성을 찾을 수 있기보다는 사대부적 면모가 드러나 보인다. 이러한 면모는 당대에 시와 산문 모두에 걸쳐 작가적 역량을 가진 인물로 식자층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李建昌의 정일현에 대한 평가에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악부체 시들과 세시풍속을 읊은 시들에서는 소재와 정감 등을 다양하게 드러내었다. 악부시와 같은 자유로운 시체에서 다양한 제재들과 세시풍속의 제재를 활용하여 여성에게 제한적일 수도 있는 소재나 정감들을 폭넓게 넘나들고 있다. 「遊仙詞」·「採蓮曲」 등의 시 짓기를 통하여 소재와 정감

의 다양함과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으며, 세시풍속의 시에서도 시어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자신만의 시각으로 색다른 정감들을 표현하였다.

여성작가 정일현의 시작품을 통해 구한말 근대 이행기의 여성시인의 면모를 살펴보면서 남성 지식인[사대부]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일현의 경우 20세에 혼자가 되어 83세에 쫓하기까지 전형적인 사대부가의 여성으로서 女事에 집중하여 온 집안의 칭찬을 받을 정도였으면서도 학문에 대한 경도는 남달랐던 것 같다. 아들 태영이 “집안을 다스리는 여가에 書史 보기를 스스로 즐거워하며 자신의 방에 편액을 ‘貞一’이라고 하셨다.”⁶²⁾고 한 기록을 통해서도 학자적 면모가 드러난다.

이러한 양상을 사대부가 여성시인의 한계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조선후기 여성문인들의 다양한 창작활동들이 집적되고 남성작가들 혹은 가족들의 지원 속에 자연스럽게 여성시인이면서 독립적인 시인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다. 남정일현 시세계의 특징을 근대 이행기의 여성문학의 발전적 면모로 인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녀의 문학사적 위상이 제대로 드러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62) 成台永, 『貞一軒詩集』, 『先考妣合葬墓誌』, p.476, “... 治家之餘 以書史自娛 扁其軒曰貞一 ...”

<參考 文獻>

- 許美子, 『朝鮮朝女流詩文全集』, 太學社, 1988.
成百曉 譯, 『貞一軒詩集』 국역본, 牛溪文化財團 1997.
- 강혜선, 『여성한시선집』, 문학동네, 2012.
김여주, 「김운초 한시연구」, 『朝鮮後期 女性文學의 再照明』,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_____, 「令壽閣 詩의 美的 特質」, 『漢文古典研究』 제30집, 韓國漢文古典學會, 2015.
문희순, 「호서지역 사대부가의 여성교육과 여성문인의 배출」, 『인문학연구』 통권 88호, 2012.
민병수, 『韓國漢詩史』, 太學社. 2006..
송준호, 『한중일 여류 한시선』, 태학사, 2013.6.
심경호, 「조선후기 시사와 동호인 집단의 문화활동」, 『민족문화연구』 제31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88.
이희목, 『이건창 문학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조연숙, 『한국고전여성시사』, 국학자료원, 2011.

Abstract

The Characteristic of Nam Jeongilheon(南貞一軒)'s Poetic world
/ Kim Yeo-ju*

Nam Jeongilheon(南貞一軒) was the wife of Seong Daeho(成大鎬) who was a 10th generation descendent of Woogye Seong Hwon(牛溪 成渾) from the late period of Chosun. She was the typical female poet of Sadaebuga(士大夫家) who lived in Seoul in her younger years and spent later years of her life in Hoseo(湖西).

After 18th century when the class in charge of literature expanded and the change in the way of life caused by Seoul's development as a city and improved productivity led to the proliferation of aesthetic taste of Sa Dae Bu(士大夫) or the middle-class bracket. These state of the time paradoxically became the basis for female authors' creative activity and they endeavored in the activity with various poetic world and philosophical thinking according to their own social status and characters. This diversity were possible because of the large influence of various changes in the late Chosun's literary circle and the silent support and recognition of the female authors from men. This article studied the aspect of this diversity by looking at the life and works of Nam Jeongilheon(南貞一軒) who was the female author from the late 19th century before the modern era.

『Jeongilheon Poetry Collection(貞一軒詩集)』 was put together by her son Taeyeong(台永) who worried that his mothers's intention to burn all her poems would lead to the loss of the entire work. Her early works had the structure of verse poem and five cadence poem where she depicted a simplicity of everyday life in a forthright and simple manner using the short and compact structure. Life's simplicity was portrayed through subject matters such as everyday occurrence between family members and her surroundings. The way in which she used the

* Professor of Sungshin Women's Univ. / yjkim@sungshin.ac.kr

calm and composed expression in depicting the sad situation made the sadness not shown conspicuously. Her works from later period, as she became more confident, was based on the consciousness of Sadaebu(士大夫) as a lady. The poems showed the aspect of her as a poet where she put meaning to the things themselves when looking at things and expressed the logics attached in a new way without failing to catch the joys of the objects. Lastly in Akbusi(樂府詩) where the structure was free-form, she was expressing her own unique views freely about diverse subject matters and feelings that were somewhat restricted to women by utilizing various subject matters such as seasonal customs of the time.

It could be seen that from the work of Jeongilheon(貞一軒), the female poets of the transitional period of late Chosun, wa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male intellectuals [Sadaebu(士大夫)]. This could be considered as a limitation of female poet of Sadaebuga(士大夫家) but also be concluded that the female authors of late Chosun naturally grew to be independent poets as their various creative activities were accumulated and they gained support from male authors and families. Nam Jeongilheon(南貞一軒)'s status in literary history could be properly established when her unique poetic world was viewed in the manner which acknowledged it as the growing aspect of women's literature in transitional period to modern era.

【Key words】 Nam Jeongilheon(南貞一軒) Youngjae Yi Gunchang(寧齋 李建昌), women's literature, consciousness of Sadaebu(士大夫), diversity of subject matters and feelings

투고일 : 5월 15일, 심사일 : 6월 2일, 게재확정일 : 6월 8일